

# 한국 사회과학 분야 학술지의 사사표기 유형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Acknowledgment Types in Korean Social Sciences Journals

이재윤 (Jae Yun Lee)\*\*

### 초 록

이 연구는 사사표기 관행이 학문 분야와 연구 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문헌정보학 분야를 중심으로 구축된 기존 사사표기 유형 분류 체계를 사회과학 분야로 확장하고, 학문 분야별 사사표기 실태와 유형 분포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KCI 우수등재지를 중심으로 심리학, 신문방송학, 사회학 분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922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사사표기 내용은 원문을 직접 수집한 후 내용분석 기법과 개방 코딩 방식을 적용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사회과학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확장 분류 체계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과학 분야 논문의 사사표기 포함 비율은 74.7%로 동일 기간 문헌정보학 분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기존 분류 체계는 사회과학 분야의 사사표기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던 동료 간 상호소통 유형이 사회학을 중심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학문 분야별 사사표기 관행과 학술 커뮤니케이션 특성의 차이를 시사한다.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acknowledgment practices in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s by extending an acknowledgment classification framework originally developed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ocusing on whether existing typologies adequately capture social science practices and how acknowledgment patterns differ across disciplines, this study analyzes 922 articles published between 2017 and 2021 in KCI-listed journals in psychology,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and sociology. Acknowledgment statements were manually collected from full-text articles and analyzed us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with an open coding approach. Based on this process, the original classification scheme was revised and expanded to reflect disciplinary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sciences. The results indicate that 74.7% of social science articles included acknowledgments, a higher proportion than that observed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uring the same period. The findings also show that the existing classification framework was insufficient to capture key features of social science acknowledgment practices,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an expanded scheme with five major categories and twenty-five subcategories. In particular, peer interactive communication emerged as a prominent acknowledgment type, especially in sociology, despite being rarely observed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s. These results highlight substantial disciplinary variation in acknowledgment practices and provide empirical evidence for developing field-sensitive acknowledgment classification and data construction in the Korean academic context.

키워드: 학술커뮤니케이션, 사사표기, 연구윤리, 사회과학, 한국학술지인용색인  
scholarly communication, acknowledgment, research ethics, social sciences, KCI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4S1A5A2A01028853).

이 논문의 일부 내용은 2025년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바 있음.

\*\* 명지대학교 인문콘텐츠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memexlee@mju.ac.kr)

■ 논문접수일자: 2025년 12월 6일 ■ 최종심사일자: 2025년 12월 15일 ■ 게재확정일자: 2025년 12월 18일  
■ 정보관리학회지, 42(4), 327-348, 2025. <http://dx.doi.org/10.3743/KOSIM.2025.42.4.327>

© Copyright © 2025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 1.1 연구 배경

최근 학술 연구에서 공동연구가 활발해지고 학술 활동의 윤리적 책임과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저 관계나 공동연구 네트워크의 구조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활발히 축적되어 왔다(서선경, 2024; 이나리, 박지홍, 2024; 이선희, 김지영, 2020). 반면, 저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멘토나 자료제공자, 검토자 등 기여자 수준의 비공식적 협력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기여자 수준의 협력 사항은 주로 사사표기를 통해 드러난다. 사사표기는 해당 논문의 연구를 수행하는 데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개인, 기관, 재단 등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문구로, 논문 본문의 학술적 내용과는 별개로 기재되지만 학술적/윤리적 책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이효빈 외, 2020).

사사표기는 연구에 대한 저자와 기여자 구분, 중복게재 혐의 회피 등의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된다.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회의(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2024)의 저자 및 기여자 역할에 대한 권고사항이나 국내의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1)에서는 연구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으나 저자 자격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기여자에 대해서는 사사표기를 통해 이름과 역할을 밝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학술대회 발표문이나 학위논문을 재

활용하여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에는 흔히 사사표기에 관련 사항을 밝히는 것이 관행이 되고 있다.

이처럼 사사표기 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08년부터 Web of Science(이하 WoS로 표기)에서는 사사표기 데이터를 색인 항목으로 추가하여 다루고 있다. 해외에서는 WoS의 사사표기 색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비 지원 성과를 살펴보거나 학술커뮤니케이션 동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Paul-Hus & Desrochers, 2019; Rigby, 2011).

그러나 국내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이하 KCI로 표기)에서는 최근까지 사사표기 데이터를 별도로 구축하고 있지 않아왔기 때문에 국내 연구 논문에 포함된 사사표기를 분석한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 기존 연구자들은 일일이 모든 논문 원문을 직접 확인하여 사사표기 정보를 추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신은자, 2020; 유삼영, 이세희, 2023; 장연미, 이재운, 2024). 다행히 KCI에서도 2025년부터 사사표기 데이터 입력이 권고되고 있지만, 데이터 구축을 위한 국내 실태 분석 및 유형 분류 체계는 미비하다. 더군다나 KCI에서는 학술지 발행자가 논문을 KCI에 등록할 때 자발적으로 사사표기 정보를 텍스트 필드 안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서 누락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어떤 정보가 사사표기에 해당되는지, KCI 사사표기 필드에 어느 사항까지 입력해야 하는지를 전혀 안내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관성 있고 충실한 데이터 구축이 보장되지도 않는다. 학술커뮤니케이션 환경을 분석한 윤정원(2024)은 학술지 국제화와 정보 유통 구조의 변화 속에서 연구 결과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 포함되는

다양한 메타정보의 투명성과 제도적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국내에서 논문 본문 외적인 요소로 간주되어 온 사사표기 역시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요소로서 메타데이터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사사표기는 “제도화된 관행이지만 학문집단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Cronin et al.(1992)의 지적처럼, 국내 연구 환경과 학술활동 관행이 해외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해외 연구결과를 국내 학계에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내 학계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국내 현실에 맞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 1.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Cronin(1991)에서부터 Paul-Hus & Desrochers(2019)에 이르기까지 사사표기의 유형을 다룬 해외 선행연구들은 모두 주된 유형이 개인에 대한 감사표시라고 밝혀왔다. 그런데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논문의 사사표기를 분석한 장연미, 이재운(2024)에서는 개인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사사표기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중복게재 회피를 위한 사사표기 유형이 상당수 파악되는 국내 학계의 특수성이 나타났다. 장연미, 이재운(2024)은 공직자 후보 청문회 등을 통해서 중복게재 등의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진 것이 우리나라만의 특수함을 낳은 원인이라고 하였다. 해외와 다른 이런 현상이 문헌정보학 분야만의 특성인지, 아니면 국내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발견되는 보편적인 특성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학문 분야의 실제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 범위를 국내 사회과학 분야로 확장하여 사사표기 실태를 분석하고 국내 학계에 적용할 수 있는 사사표기 유형 분류 체계를 도출하며, 유형별 논문 비중과 특성 차이를 파악하여 국내 학술 커뮤니케이션 현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사회과학 분야 학술지 논문의 사사표기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선행연구(장연미, 이재운, 2024)에서 도출했던 문헌정보학 중심의 사사표기 분류 체계를 개정하여 사회과학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분류 체계로 확장한다.

둘째, 국내 사회과학 분야별 사사표기 포함 비율과 유형별 사사표기 분포 특성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국내 사회과학 분야의 보편적인 사사표기 유형을 파악하고 세부 학문분야 간 차이를 밝힌다.

셋째, 문헌정보학 분야와 사회과학 분야의 비교를 통해, 면책을 위한 ‘윤리’ 유형 사사표기의 보편성과 ‘동료 간 상호 소통’ 유형의 분야별 차이를 규명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장에서 사사표기 유형 구분과 유형별 비율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3장에서 사회과학 분야 사사표기 분석을 위한 연구데이터와 분석 방법을 설명한다. 이후 4장에서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5장에서 논의와 결론을 제시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사사표기 유형 구분 선행연구

사사표기의 유형을 구분한 최초의 연구는 사회학 분야의 Mackintosh(1972)를 들 수 있으나, 그의 연구는 3가지 범주의 간단한 분류에 그쳤다. 사사표기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연구는 문헌정보학자인 B. Cronin이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자리를 잡게 되었다. Cronin(1991)은 문헌정보학분야의 대표 학술지인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에 21년 동안 게재된 논문의 사사표기 유형을 분석한 결과, 자원 관련(재정적 도움, 정신적 도움), 절차 관련(연구보조, 기술적 도움), 개념 관련(연구 원동력 제공, 믿음직한 평가자)의 3개 대분류, 6개 소분류로 제시하였다.

이후 Cronin et al.(1993)에서는 연구 범위를 역사, 철학, 심리학, 사회학으로 확장하면서 사사표기 유형을 수정하여 정신적 지원 유형에서 접근 허용(access)을 분리하였고, 개념 관련 도움 유형을 McCain(1991)이 제시한 동료간 상호소통(peer interactive communication: PIC) 유형으로 재정의하였다. 이후 관련 연구를 지속하면서 Cronin et al.(2003; 2004)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대상으로 100년간의 논문을 분석하며 유형을 7가지로 다시 구분하였다. 이처럼 대상 학문 분야를 확장하면서 연구를 수행할 때마다 도출된 사사표기 유형이 조금씩 달라졌는데, 이는 학문 분야나 학술지의 관행에 따라 사사표기 행태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

기 때문이다.

2010년대에는 Rattan(2013; 2014)이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지 Annal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와 DESIDOC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Technology의 사사표기를 분석하여 접근 허용, 동료간 상호소통, 정신적 도움, 기술적 도움, 연구 보조, 재정 지원, 논문 작성 지원, 기타의 8가지로 세분된 분류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의 선행연구에서 다른 사사표기 유형은, 결과적으로 보면 모두 대상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한 경우만 다루었다. 감사 의사표현 위주로 사사표기 유형을 다른 선행연구들의 분류체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듯이 Rattan(2014)의 사사표기 분류체계가 그 이전의 분류체계를 거의 포괄하도록 상세하게 정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Paul-Hus & Desrochers(2019)는 Web of Science의 SCIE와 SSCI에 등록된 2015년 출판 논문 1,009,411건의 사사표기 텍스트를 자연언어처리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자동으로 추출된 표현 중에서 특히 자주 등장하는 문구를 154개의 단어로 압축하여 정리한 후, 이를 다시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13개의 사사표기 범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이전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사사표기 내용이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경우 이외에도 윤리적인 면책 사항 명시(disclaimers)의 경우나 저자의 개인적인 목소리(authorial voice)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음을 밝혔다(<표 2> 참고). 이들의 연구는 최초로 감사 표현 이외의 정보가 사사표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 점에서 의의가 크다.

〈표 1〉 감사 의사표현 위주의 사사표기 유형을 분류한 선행연구의 분류체계 비교

Cronin(1991)	Cronin et al.(1993)	Cronin et al.(2003)	Rattan(2014)
재정적 지원 (paymaster)	재정적 지원 (financial suport)	재정적 지원 (financial)	재정적 지원 (financial support)
정신적 지원 (moral support)	정신적 지원 (moral support)	정신적 지원 (moral)	정신적 지원 (moral support)
연구보조(잡무) (dogbody)	연구보조 (clerical support)	—	연구보조 (clerical support)
—	—	원고작성 도움 (editorial)	논문작성지원 (manuscript & editorial support)
기술적 도움 (technical)	기술적 도움(technical) 접근 허용(access)	도구 및 기술지원 (instrumental/technical)	기술적 도움(technical support) 접근 허용(access)
연구 원동력 제공 (prime mover) 믿음직한 평가자 (trusted assessor)	동료간 상호소통 (peer interactive communication)	개념적 도움 (conceptual)	동료간 상호소통 (peer interactive communication)
—	—	대리발표(reader) 기타(unknown)	기타 (unclassifiable)

이효빈 외(2020)는 Paul-Hus & Desrochers (2019)의 연구를 비롯한 해외 사사표기 분류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Paul-Hus & Desrochers (2019)의 분류체계는 설정된 범주들이 상호 배타적이지 못하고 범주 간 경계가 다소 모호하다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선행연구의 범주들을 참고하여 사사표기 유형을 〈표 2〉와 같이 기여(Contributions), 면책(Disclaimers), 의사소통(Communications)의 세 가지 대분류와 10개 세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결과를 보면 내용상 Paul-Hus & Desrochers(2019)의 분류체계를 가장 많이 참고하여 책임을 면하기 위한 목적에 해당하는 범주를 다수 포함하였다. 특히 Paul-Hus & Desrochers(2019)이 제기한 면책 유형과는 별개로, 이전에 연구내용을 발표한 경우에 해당하는 학문적 면책 범주를 추가로 설정한 것은 중복제재에 대한 윤리적 경계심이 높은 국내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

지만 이들의 사사표기 분류체계는 실제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가 아니므로 국내 학술지 논문의 사사표기를 실제로 얼마나 포괄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이효빈 외(2020)의 분류체계를 그 이전 선행연구의 분류체계 중 가장 상세한 Rattan(2014)의 분류체계와 비교해보면, 포함하지 못한 범주가 있고 너무 뭉뚱그린 범주도 있다. 이효빈 외(2020)는 다른 선행연구에서 모두 포함했던 재정적 지원에 대한 감사표시 유형을 분류체계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또한 Rattan(2014)의 8개 범주 중에서 연구보조, 논문작성지원, 기술적 도움, 접근 허용의 4개 범주가 이효빈 외(2020)의 분류체계에서는 기술적 지원 범주로 뭉뚱그려져 있다.

한편 장연미, 이재운(2024)은 기존 사사표기 분류체계가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사사표기를 포괄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국내 문헌정보

〈표 2〉 Paul-Hus & Desrochers(2019)와 이효빈 외(2020)의 분류체계 비교

Paul-Hus & Desrochers(2019)	이효빈 외(2020)	예시(이효빈 외, 2020)
재정 지원 명시(Financial disclosure)		
기관 도움 명시(Organization)		
	행정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RB 승인, IACUC 승인 등을 받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사람</li> <li>•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비 처리 등 행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람</li> </ul>
감독 및 관리 (Supervision and Management)	연구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를 관리 감독한 경우</li> <li>•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한 경우</li> <li>• 필드 리서치에서 통역을 도와준 경우</li> </ul>
자료 및 자원 (Materials and Resources)		
조사 및 분석 (Investigation and Analysis)	기술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 실험이나 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li> <li>• 테크니션과 같이 연구가 진행되는 데 있어 기술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람</li> </ul>
집필(Writing)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이해상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결과, 연구자, 연구기관이나 연구 지원 기관 사이의 모든 이해관계를 밝힘</li> <li>• 연구자가 소속기관 이외의 조직이나 단체로부터 급여, 대가, 선물 등을 받기로 한 경우</li> </ul>
윤리(Ethics)	윤리적 면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가 특정 IRB 승인을 받았다거나 연구윤리위원회의 검토를 받았다고 밝히는 경우</li> </ul>
면책(Disclaimer)	재정적 면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연구자가 재정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재정 지원이 연구결과나 연구 수행에 관계가 없는 경우</li> </ul>
	기관적 면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지원 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았지만 연구 내용이 그와 관계없는 경우</li> </ul>
	학문적 면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에 학회나 언론 등에 연구결과를 발표하거나 공개한 경우</li> </ul>
동료 의사소통(Peer communication)	동료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문을 읽고 코멘트를 하거나 토론 등을 통해 발전에 기여한 경우</li> </ul>
확산(Dissemination)	연구의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데이터나 결과를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밝히는 경우</li> </ul>
복합(Combination)		
의미불명/기타(Vague or other)		

학 분야 사례에 기반한 사사표기 분류체계를 새로 개발하였다. 이들은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4종 학술지를 대상으로 9년 동안의 사사표기를 수집하여 내용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윤리와 감사의 2개 대분류로 사사표기를 크게 나누고, 6개 중분류, 19개 소분류로 사사표기를 세분화하였다.

장연미, 이재윤(2024)의 사사표기 분류체계

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실제 데이터에 기반하였으므로 선행연구들에 비해서 매우 상세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사사표기 분류에는 적합하지만, 다른 학문분야의 사사표기도 모두 포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던 이해상충, 연구의 보급 등의 사사표기 유형이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서 해당 범주가

〈표 3〉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사사표기 분류체계(장연미, 이재운, 2024)

사사표기 유형			개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윤리	기존 출판물 있음	용역연구(보고서)	특정기관의 연구용역사업 결과 보고서와 내용이 중복되는 논문
		학위논문-석사	저자의 석사학위논문과 내용이 중복되는 논문
		학술대회발표	학술대회, 세미나 발표 후 투고한 논문
		학위논문-박사	저자의 박사학위논문과 내용이 중복되는 논문
	기존 출판물 없음	공모	특정 기관 내부에서 지정 주제에 대하여 공모된 논문
		자료활용	자신의 타 논문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한 논문
		수업	교수자가 수업 내용을 보완·활용한 논문
		과제	특정 교육을 수강하면서 작성한 논문
	기타 윤리	IRB승인	연구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위하여 윤리적, 과학적 측면을 심의하여, 연구계획을 승인받음
	감사	재정 지원	교내연구비지원
연구비지원(NRF)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지원받은 논문
기관내 연구비지원			대학 이외의 기관 소속 연구자가 소속기관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
교내연구비지원-장학금			대학교에서 연구를 목적으로 장학금을 받음
연구비지원-사업			특정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한 논문
연구비지원-장학금			학생이 장학금을 지원받아 연구한 논문
비재정 지원 (도움)		도움-자료	논문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도움받음
		도움-기관	논문 작성 시 특정기관의 도움을 받음
		도움-개인	논문 작성 시 개인의 도움을 받음
기타 감사		추모	사사표기에 고인이 된 공저자를 추모하는 내용을 담음

분류체계에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2 사사표기 비율 및 대상 분석 선행연구

학술지 논문 중에서 사사표기가 포함된 논문의 비율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학문 분야 간, 학술지 간, 출판 시기 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Cronin et al.(1993)이 1971년부터 1990년까지의 사사표기 비율을 비교했을 때, 심리학 및 사회학 분야가 85.7%로 가장 높았고 철학 분야가 21.7%로 가장 낮았다. 최근 연구에서도 이러한 차이는 지속되었다. Paul-Hus et al.(2017)이 WoS 색인 논문을 분석했을 때, 사회과학 분야는 50% 미만으로 낮은 편이었고

(사회과학 33.7%, 심리학 48.2%), 과학기술 분야는 대부분 70%~80%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감사의 대상과 관련하여, Smirnova & Mayr (2023)는 Wo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양학과 사회과학 분야는 기금기관명, 개인명, 연구과제 번호의 순으로 많이 등장한 반면, 경제학 분야는 유일하게 개인이 현격한 차이로 기금기관보다 많이 언급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논문 심사자에 대한 감사표시 연구(Jia et al., 2023)에서는 심사자에 대한 감사표시 비율이 사회과학 분야(1.99%)에서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저자의 소속 국가에 따른 차이도 컸는데, 논문 수 상위 25개 국가 중에서 캐나다가 5.48%로 가장 높았고 한국이 1.48%로 가장 낮았다.

이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심사자에게 감사표시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연미, 이재윤(2024)의 문헌정보학 분야 사사표기 연구에서 확인된 국내 문헌정보학계의 고유한 사사표기 관행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윤리(면책) 유형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문헌정보학 논문에서는 용역연구(보고서)(12.9%), 학위논문-석사(6.7%), 학술대회발표(5.2%), 학위논문-박사(4.8%)와 같이 중복게재 회피를 위한 사사표기(윤리 유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해외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유형이다.

둘째, 개인에 대한 감사 유형, 즉 PIC 유형이 거의 없었다. 해외에서 주된 유형으로 제시된 개인에 대한 감사표시는 2건에 불과(0.46%)했으며, 심사자에 대한 감사표시는 한 건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해외 학계와 큰 차이를 보이며, 국내 문헌정보학계의 사사표기 관행이 해외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려준다.

셋째, 사사표기 유형별로 논문의 계량서지적 특성이 다르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특히 용역연구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투고한 논문은 참고문헌의 양이나 최신성이 일반 연구 논문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보여, 사례연구(case study)와 같은 별도의 논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국내 일부 학술지는 석사학위논문 투고를 받지 않고 박사학위논문만 받는 경우가 있는데, 문헌정보학 분야의 사전 연구에서는 두 유형의 논문 간에 인용 수준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석사학위논문을 발

전시킨 경우가 근소하게 더 높은 평균 인용도를 보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는 해외의 사사표기 관행에만 근거하여 국내 사사표기 및 연구윤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시사하며, 본 연구가 사회과학 분야로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 학계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규명해야 하는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한다.

### 3. 연구 데이터 및 방법

#### 3.1 연구 설계 및 대상

문헌정보학 분야의 선행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사회과학 분야 학술지의 사사표기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첫째, 대상 분야로는 KCI 대분류 범주인 사회과학에 속한 중분류 수준 학문분야 중에서, 우수등재지가 2종 이상 지정되어 있는 심리학,<sup>1)</sup> 신문방송학, 사회학의 3개 학문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외에 정치외교학 분야도 우수등재지가 2종이었지만, 그중 하나인 <국제정치논총>은 2010년에 등재후보지로 하락하는 등 부침이 있었기에 정치외교학 분야를 분석 대상 분야로 선택하지 않았다. 두 종 이상의 학술지가 꾸준한 등재 내역을 가진 경우에 해당 분야의 대표 학술지라고 판단하고자 하였다.

둘째, 대상 학술지는 세 학문 분야별로 KCI 우수등재지 2종씩을 모두 선정하여 <표 4>와

1) KCI에서는 중분류 명칭으로 '심리과학'을 사용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해당 분야 학술지명을 비롯해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심리학'이라는 학문명칭으로 표기하였다.

〈표 4〉 분석 대상 사회과학 학문 분야별 학술지 현황(2017~2021)

학문 분야	학술지	발행기관	창간년도	KCI 등재 내역	연간 발행횟수	논문 수('17-'21)	
						학술지	분야
사회학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회	1964	후보(1999.01~2001.06): 등재(2001.07~2016.12): 우수(2017.01~현재)	4	116	302
	경제와 사회	비판사회학회	1988	후보(1999.01~2002.12): 등재(2003.01~2016.12): 우수(2017.01~현재)	4	186	
신문방송학	한국언론학보	한국언론학회	1960	후보(1999.01~2001.06): 등재(2001.07~2016.12): 우수(2017.01~현재)	6	244	424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회	1990	후보(1998.07~2003.12): 등재(2004.01~2017.12): 우수(2018.01~현재)	6	180	
심리학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한국심리학회	1968	후보(2003.01~2005.12): 등재(2006.01~2016.12): 우수(2017.01~현재)	4	109	196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한국사회및성격 심리학회	1982	후보(2000.01~2001.12): 등재(2002.01~2014.12): 우수(2015.01~현재)	4	87	

같이 총 6종의 학술지를 선정하였다. 흥미롭게도 분야마다 1960년대에 창간된 전통있는 학술지 1종과 1980-1990년 사이에 창간된 학술지 1종이 포함되었다. 6종 학술지 게재 논문 중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게재된 논문의 사사표기 정보를 분석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논문의 출판 시기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으로 하였다. 선행연구(장연미, 이재윤, 2024)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 간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기에 따른 차이도 살펴보았으나, 이 연구에서는 시기에 따른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분야 간 비교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해당 기간 중 최근 5년 데이터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6종 학술지 별로 해당 기간 동안 발간된 정규 논문을 모은 결과 총 922편의 논문이 분석 대상으로 확보되

었다.

한편 문헌정보학 분야의 사사표기 데이터(장연미, 이재윤, 2024)를 사회과학 3개 학문분야와 비교하기 위해서 분석 대상 기간과 동일한 5년치(2017년-2021년)로 재집계하여 활용하였다.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4종 학술지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게재된 정규논문은 1,114편이었다.

### 3.2 사사표기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KCI에 사사표기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정된 학술지의 모든 논문 원문을 일일이 확인하여 사사표기 내용을 직접 수집하고 확보하였다. 수집된 사사표기 내용에 대해서

는 내용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개방 코딩 방식으로 유형 범주를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보조원과 함께 2인이 기존 문헌정보학 분류체계(장연미, 이재윤, 2024)를 적용하며 코딩하고, 미분류 사례나 모호한 사례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 하에 새로운 범주를 생성하여 코딩하였다. 한 논문에 사사표기 내용이 여러 개 있거나 하나의 내용에 두 개 이상의 개념이 존재하는 경우 중복 코딩을 허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전체 사사표기 비율 및 사사표기 범주별 비율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3개 분야 내의 차이와 문헌정보학 분야와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설정된 분류범주 중에서 전체 1% 이상을 차지하는 유형을 주요 사사표기 유형으로 선정하고 별도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 4. 분석 결과

### 4.1 사회과학 분야 사사표기 비율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발행된 사회과학 3개 분야 논문 922편 중 사사표기가 포함된

논문은 689편으로, 전체 사사표기 비율은 74.7%로 나타났다. 학문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신문방송학이 77.4%로 가장 높았고, 사회학 76.5%, 심리학 66.3%의 순이었다. 비교하기 위해서 문헌정보학 분야의 사사표기 비율을 분석 기간(2017~2021)을 맞춰 재산정해본 결과는 63.2%였다. 따라서 국내 사회과학 3개 분야는 문헌정보학 분야보다 전반적으로 사사표기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같은 사회학과 심리학 학문분야 내에서도 학술지마다 차이가 다소 있었다. 6종 학술지 중에서 심리학 분야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의 사사표기 논문 비율은 문헌정보학 분야와 비슷한 63.3%로 가장 낮았고, 사회학 분야의 <한국사회학>이 사사표기 논문 비율이 가장 높은 87.1%였다.

국내 사사표기 비율을 Paul-Hus et al.(2017)이 2015년 발간된 WoS 논문을 분석한 결과와 비교해보면, 국내 사사표기 비율이 모두 1.5배에서 2배 가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aul-Hus et al.(2017)에서는 WoS 사회과학 분야가 33.7%, 심리학 분야가 48.2%, 전문직 분야가 30.6%였다. 다만, 이런 차이를 가지고 해외보다 국내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사표기가 더 활발하

<표 5> 사회과학 3개 분야 학술지와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사사표기 비율(2017-2021)

분야	학술지명	사사표기 논문 수	전체 논문 수 ('17-'21)	사사표기비율	
				학술지별	분야별
사회학	경제와사회	130	186	69.9%	76.5% (231/302)
	한국사회학	101	116	87.1%	
신문방송학	한국방송학보	143	180	79.4%	77.4% (328/424)
	한국언론학보	185	244	75.8%	
심리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61	87	70.1%	66.3% (130/196)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69	109	63.3%	
사회과학 3개 분야 합계		689	922	74.7%	
문헌정보학 분야 4종 학술지 합계		704	1,114	63.2%	

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장연미, 이재운(2024)의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감사 유형의 사사표기 비율이 36.4%였는데, 윤리 유형의 사사표기 비율도 30.5%로 나타나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주로 나타나는 감사 유형의 사사표기 비율만 고려한다면, 한국 문헌정보학의 감사 유형 사사표기 비율 36.4%와 WoS 전문직 분야의 사사표기 비율 30.6%는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사회과학의 사사표기 비율에서도 윤리 유형의 사사표기를 제외한 비율을 파악하여 해외의 경우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룬다.

## 4.2 사사표기 분류 체계 개정 및 확장

사회과학 분야 사사표기를 살펴보면 분류체계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문헌정보학 분야 사사표기 분석을 통해 도출된 분류체계를 최대한 유지하였다. 다만 사회과학 분야에서 발견된 사사표기를 포괄할 수 있도록 일부 범주는 통합하거나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 없었던 사사표기 유형을 위해서 추가해야 하는 범주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설정한 사사표기 범주와 일치할 경우는 기존의 사사표기 범주를 차용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개정된 사사표기 분류체계는 <표 6>과 같다. 이 표의 '출처' 항목에는 동일한 범주를 설정한 선행 연구를 표시했고, '변경 여부' 항목에는 장연미, 이재운(2024)에서 설정했던 소분류 범주와 동일하거나 명칭변경한 경우, 통합한 경우나 신규로 추가한 경우를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중분류 수준은 이전의 6개 범주 중에서 기타

감사 범주를 삭제하고 그 아래에 속했던 소분류 수준의 추모 범주를 중분류 비재정적 지원 범주 아래로 옮겨서 5개의 중분류 범주로 정리하되, 각 중분류 범주의 명칭은 일관성을 위해 다듬었다. 기존 소분류 범주 19개 중에서 10개가 그대로 유지되었고, 6개는 범주명만 변경되었으며, 3개는 하나로 통합되었다. 또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8개의 새로운 소분류 수준 범주가 신설되었다. 중분류 기타 윤리 범주 아래에 소분류 범주 5개, 그리고 중분류 비재정 지원 아래에 소분류 범주 3개가 새로 추가되었다. 이에 사회과학 분야 사사표기 분류 체계는 2개 대분류(윤리, 감사)와 5개 중분류, 25개 소분류로 확장되었다.

각 소분류 범주마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했던 사사표기 범주와 같은 의미인 경우는 해당 선행 연구를 <표 6>에 출처로 밝혔다. 그런데 각 저자의 기여도를 밝히는 '기여도' 범주, 타 문헌의 제목을 오마주한 논문제목임을 밝히는 '논문제목 오마주' 범주, 이미 게재했던 논문을 수정해서 재게재했음을 밝히는 '재게재' 범주는 선행연구에서 사사표기 유형으로 언급된 적이 없어서 출처를 적지 않았다. 변경/통합되거나 신설된 범주를 위주로 분류체계의 자세한 내용을 <표 6>의 중분류 순서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대분류 윤리 범주에 속한 중분류 '출판물 중복 면책' 범주는 선행연구(장연미, 이재운, 2024)에서 설정한 '기존 출판물 있음' 범주의 명칭만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변경한 것이다. 하위에 속한 소분류 범주 4개는 이전의 범주를 그대로 유지하되, '용역연구(보고서)'만 명칭을 '연구사업보고서'로 바꾸었다.

〈표 6〉 사회과학 분야 사례를 반영해서 개정된 사사표기 상세 분류체계

대	범주		출처	변경 여부	개념	
	중	소				
윤리	출판물 중복 면책	연구사업보고서	장연미, 이재운(2024)	명칭변경	특정 기관의 연구용역사업 결과 보고서 또는 특정 기관의 내부 보고서와 내용이 중복되는 논문	
		학위논문-박사	장연미, 이재운(2024)	동일	저자의 박사학위논문과 내용이 중복되는 논문	
		학위논문-석사	장연미, 이재운(2024)	동일	저자의 석사학위논문과 내용이 중복되는 논문	
		학술대회발표	장연미, 이재운(2024)	동일	학술대회, 세미나 발표문과 내용이 중복되는 논문	
	비출판물 중복 면책	공모	장연미, 이재운(2024)	동일	특정 기관 내부에서 지정 주제에 대하여 공모된 논문	
		데이터제사용	장연미, 이재운(2024)	명칭변경	자신의 타 논문, 보고서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한 논문	
		교육활동 과제	장연미, 이재운(2024) 장연미, 이재운(2024)	명칭변경 동일	수업 등의 교과나 비교과 활동을 보완, 활용한 논문 특정 교육을 수강하면서 작성한 논문	
	기타 윤리	이해상충	Paul-Hus & Desrochers(2019)	신규	연구결과, 연구자, 연구기관이나 연구 지원기관 사이의 모든 이해관계를 밝힘	
		연구의 보급	이호빈 외(2020)	신규	연구 데이터나 결과를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밝히는 경우	
		IRB승인	장연미, 이재운(2024)	동일	연구대상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위하여 윤리적, 과학적 측면을 심의하여 연구계획을 승인받음	
		기여도	—	신규	연구과정에서 이루어진 기여도를 밝힌 논문	
		논문제목 오마주 재게재	— —	신규 신규	논문 제목이 책 또는 타 논문의 제목을 참고하여 작성된 논문 게재된 논문이 수정후 재게재된 논문	
	감사	재정 지원	연구비지원	장연미, 이재운(2024)	통합	공공기금(교육부,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등)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 주로 공모된 과제 등을 의미함. 민간기금(학회, 민간기관, 기업 등)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
			교내연구비지원	장연미, 이재운(2024)	동일	대학교원(교수, 강사, 대학원생, 학부생 포함)이 소속 대학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한 논문
			교내연구비지원-장학금	장연미, 이재운(2024)	동일	대학 구성원(대학원생, 학부생 등)이 소속 대학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아 작성한 논문
기관내연구비지원			장연미, 이재운(2024)	동일	대학 이외의 기관 소속 연구자가 소속기관의 연구비를 지원 받은 논문	
비재정 지원		자료 도움	장연미, 이재운(2024)	명칭변경	타인에게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특정 기관에게 자료, 데이터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것을 말함.	
		접근 허용	Rattan(2013)	명칭변경	기관의 시설/장비/인력(공간, 장치, 도서관, 설비, 연구실, 설문조사, 데이터수집, 연구정보제공 등) 제공	
		연구보조	Cronin(1991)	신규	서지사항 확인, 반복적인 데이터 수집/입력/분석 등	
		기술적도움	Rattan(2013)	신규	기술적인 전문성, 통계 기법, 프로그래밍, 실험 기법, 설문지 설계, 연구분석 설계 등에 대한 조언 및 도움	
		논문작성지원	Rattan(2013)	신규	원고 준비, 편집, 교정, 번역 등의 도움	
		동료간 상호소통	Rattan(2013)	명칭변경	연구 관련 조언, 유용한 제안, 지적인 인도, 비판적 리뷰, 논의, 평가 등과 관련된 도움	
추모	장연미, 이재운(2024)	동일	사사표기에 고인이 된 공저자를 추모하는 내용을 담음			

대분류 윤리 범주에 속한 중분류 ‘비출판물 중복 면책’ 범주는 이전의 ‘기존 출판물 없음’ 범주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하위에 속한 소분류도 그대로 유지하되, 이전의 ‘자료활용’을 ‘데이터재사용’으로, ‘수업’을 ‘교육활동’으로 명칭만 변경하였다.

대분류 윤리 범주에 속한 중분류 ‘기타 윤리’ 범주에는 그 아래의 소분류 수준에 추가로 발견된 5개의 신규 범주를 추가하였다. 신설된 범주 중 재정적, 인적, 제도적, 지적, 직무상 이해관계의 충돌 여부를 명시한 ‘이해상충’ 범주와, 연구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한 ‘연구의 보급’ 범주는 이호빈 외(2020)가 제시했던 범주이다. 이외에 각 저자의 기여도를 밝히는 ‘기여도’ 범주, 타 문헌의 제목을 오마주한 논문제목임을 밝히는 ‘논문제목 오마주’ 범주, 이미 게재했던 논문을 수정해서 재게재했음을 밝히는 ‘재게재’ 범주는 선행연구에서 사사표기 유형으로 언급된 적이 없는 새로운 범주이다.

대분류 감사 범주에 속한 중분류 ‘재정지원’ 범주의 경우 이전에는 6개 소분류 범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구분이 어려운 ‘연구비지원(NRF)’와 ‘연구비지원-사업’, ‘연구비지원-장학금’을 ‘연구비지원’ 범주로 통합하여 총 4개의 소분류 범주로 구성되도록 변경하였다. 연구비지원 범주에는 공공기금이나 민간기금의 연구비 지원 성과논문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였다.

대분류 감사 범주에 속한 중분류 ‘비재정지원’ 범주에서는, 이전의 3개 소분류 범주를 명칭만 변경하여 유지하고, 대분류 기타 감사 범주에 속했던 추모 범주를 옮겨왔다. 이에 더해

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없었으나 사회과학 분야에서 새롭게 발견된 3개 소분류 범주를 신설하여 총 7개의 소분류 범주가 중분류 비재정지원 범주 아래에 포함되었다. 해외 선행연구의 사사표기 범주 명칭과 맞추기 위해서 이전의 ‘도움-자료’ 범주는 ‘자료 도움’ 범주로, 이전의 ‘도움-기관’ 범주는 ‘접근 허용’ 범주로, 이전의 ‘도움-개인’ 범주는 ‘동료간 상호소통(PIC)’ 범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추가로 발견된 소분류 범주는 ‘연구보조’, ‘기술적 도움’, ‘논문작성지원’의 세 가지이다. 연구보조 범주는 서지사향 확인, 반복적인 데이터 수집/입력/분석 등 비전문적인 도움을 받은 경우이다. 기술적 도움 범주는 연구 수행과 관련된 통계 기법, 프로그래밍, 실험 기법, 설문지 설계, 연구 분석 설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 및 도움을 받은 경우이다. 논문작성지원 범주는 원고 준비나 편집, 교정, 번역 등의 도움을 받은 경우이다. 추가된 세 가지 사사표기 범주는 기존의 Cronin(1991)의 연구나 Rattan(2013)의 연구에서는 있었지만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유형이다.

25개 소분류 범주 중에서 새로 추가된 8가지 소분류 범주에 해당하는 표기 사례는 <표 7>과 같다. <표 6>의 25개 소분류 범주 중에서 이전과 동일하거나 명칭만 변경된 범주에 해당하는 17가지 유형의 표기 사례는 장연미, 이재운(2024)에 소개되어 있다.

### 4.3 학문분야 간 사사표기 유형 비교

#### 4.3.1 소분류 수준 사사표기 유형 비교

앞에서 개정한 사사표기 유형 분류체계에 따

〈표 7〉 사회과학 분야를 위해 추가된 소분류 범주와 표기 사례

중분류	추가된 소분류 범주	표기 사례 <출처 학술지>
기타 윤리	이해상충	이해관계 충돌: 저자들은 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를 지원한 기관과 그 어떠한 상업적/재정적 이해관계 충돌의 여지가 없음을 확인함. <한국심리학회지:일반>
	연구의 보급	본문에 포함되지 않은 보충 분석 결과를 정리한 표와 그림들은 pdf 형식의 온라인 보조자료로 정리하였으며, 교신저자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URL 주소 생략). <한국심리학회지:사회및성격>
	기여도	모든 저자가 논문의 기획과 작성에 동일한 정도로 기여했음을 밝힌다. ○○○과 △△△는 세대 간 계층이동에 대한 내용을, □□□와 ◇◇◇은 교육 불평등에 대한 부분을 작성했다. 서론과 분석들은 □□□가 작성했으며 결론 및 토의는 모든 저자들이 함께 작성했다. <경제와사회>
	논문제목 오마주	논문 제목은 ○○○(1978)의 xxx xxx xxx(□□ □□□□)에서 따왔음을 밝힙니다. <경제와사회>
	재게재	이 논문은 원래의 게재 논문에 포함된 인터뷰 당사자들의 수정 의견 제시에 따라 일부 문장 등을 수정 후, 한국방송학보 편집위원회의 검토와 의견을 거쳐 다시 게재 확정된 논문입니다. (2018.10.03,일자) <한국방송학보>
비재정 지원	연구보조	자료 수집과 정리에 힘써 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선대학원 △△△, □□□ 석사과정께도 감사드립니다. <한국언론학보>
	기술적 도움	통계분석기법과 관련해 유익한 제언을 제공해 주신 ○○○,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경제와 사회>
	논문작성지원	원고 교정을 도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선대학원 □□□ 석사과정생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방송학보>

라서 사회과학 분야 3개 학문분야 6종 학술지의 논문에서 발견된 사사표기를 분류하여 집계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을 보면, 소분류 수준의 공모, 과제, 기관내연구비지원, 추모의 4가지 유형은 문헌정보학 분야에만 확인되고 사회과학의 3개 분야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중에서 다른 3가지 유형은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사례가 1건씩만 있었지만, 기관내연구비지원 유형의 사사표기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8건이나 있었는데 사회과학의 3개 학문분야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표 8〉에서 분야마다 5% 이상의 논문에 나타난 사사표기 유형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고, 10% 이상인 경우는 추가로 굵은 글씨로 구분하였다.

학문분야별로 흔하게 나타나는 사사표기 유형을 살펴보면, 사회학 분야만 동료간 상호소

통(48.0%)이 1위이고, 신문방송학과 심리학은 연구비지원이 1위(각각 27.8%와 35.2%)이다. 연구비지원 유형은 사회과학 3개 학문분야 전체에서 32.5%이고 각 분야에서도 모두 30% 내외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16.1%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학술대회발표는 사회학 분야에서 3위(21.9%)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다른 학문분야에서는 5위 이내에 포함되지 못한다. 내용 분석 과정에서 사회학 분야의 사사표기에는 학술대회에서의 발표에 대해 토론해준 토론자에게 감사하는 표현이 자주 많이 등장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회학이 다른 학문분야에 비해서 학술대회 등의 기회를 통한 동료간 상호소통이 매우 활발한 학문분야임을 의미한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0.1%의 비율로 거의 없

〈표 8〉 사사표기 유형별 건수와 총 논문 수 대비 비율(2017-2021)

대	범주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학	사회과학 3개 분야 전체	문헌정보학	
	중	소						
윤리	출판물 중복 면책	연구사업보고서	8( 2.6%)	8( 1.9%)	4( 2.0%)	20( 2.2%)	<b>160(14.4%)</b>	
		학위논문-박사	<b>15( 5.0%)</b>	<b>45(10.6%)</b>	<b>13( 6.6%)</b>	<b>73( 7.9%)</b>	44( 3.9%)	
		학위논문-석사	3( 1.0%)	<b>48(11.3%)</b>	<b>20(10.2%)</b>	<b>71( 7.7%)</b>	<b>112(10.1%)</b>	
		학술대회발표	<b>66(21.9%)</b>	<b>45(10.6%)</b>	<b>10( 5.1%)</b>	<b>121(13.1%)</b>	44( 3.9%)	
	비출판물 중복 면책	공모	—	—	—	—	1( 0.1%)	
		데이터재사용	1( 0.3%)	12( 2.8%)	5( 2.6%)	18( 2.0%)	3( 0.3%)	
		교육활동 과제	1( 0.3%)	—	—	1( 0.1%)	2( 0.2%)	
	기타 윤리	이해상충	—	1( 0.2%)	1( 0.5%)	2( 0.2%)	—	
		연구의 보급	1( 0.3%)	1( 0.2%)	—	2( 0.2%)	—	
		IRB승인	—	—	1( 0.5%)	1( 0.1%)	1( 0.1%)	
		기여도	1( 0.3%)	—	1( 0.5%)	2( 0.2%)	—	
		논문제목 오마주	2( 0.7%)	—	—	2( 0.2%)	—	
		재게재	—	1( 0.2%)	—	1( 0.1%)	—	
	감사	재정 지원	연구비지원	<b>113(37.4%)</b>	<b>118(27.8%)</b>	<b>69(35.2%)</b>	<b>300(32.5%)</b>	<b>179(16.1%)</b>
			교내연구비지원	<b>24( 7.9%)</b>	<b>94(22.2%)</b>	<b>26(13.3%)</b>	<b>144(15.6%)</b>	<b>212(19.0%)</b>
교내연구비지원-장학금			8( 2.6%)	5( 1.2%)	4( 2.0%)	17( 1.8%)	8( 0.7%)	
기관내연구비지원			—	—	—	—	8( 0.7%)	
비재정 지원		자료 도움	6( 2.0%)	8( 1.9%)	1( 0.5%)	15( 1.6%)	3( 0.3%)	
		접근 허용	2( 0.7%)	8( 1.9%)	1( 0.5%)	11( 1.2%)	1( 0.1%)	
		연구보조	6( 2.0%)	4( 0.9%)	2( 1.0%)	12( 1.3%)	—	
		기술적도움	1( 0.3%)	—	—	1( 0.1%)	—	
		논문작성지원	—	2( 0.5%)	2( 1.0%)	4( 0.4%)	—	
		동료간 상호소통	<b>145(48.0%)</b>	<b>45(10.6%)</b>	<b>9( 4.6%)</b>	<b>199(21.6%)</b>	1( 0.1%)	
추모	—	—	—	—	1( 0.1%)			

었던 동료간 상호소통은 신문방송학에서 10.6%, 심리학에서 4.6%의 논문에 나타나서 문헌정보학 분야가 예외적으로 동료간 상호소통이 잘 드러나지 않는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14.4%로 흔한 연구사업 보고서 유형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모두 2% 내외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탁연구나 용역연구 등을 통해 생산되는 연구사업보고서의 내용을 학술지 논문으로 다듬어 발표하는 관행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성행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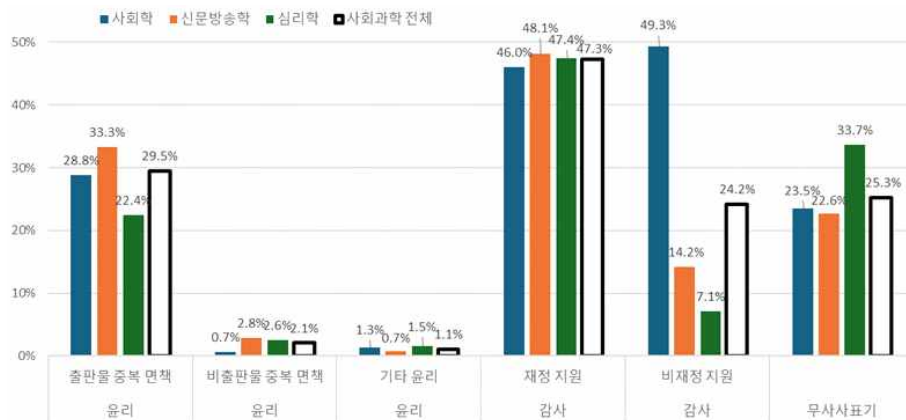
는 현상임을 의미한다. 이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사사표기 관행, 출판 정책, 연구 행태에 대해 다양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학위논문-석사 유형은 신문방송학 분야(11.3%)와 심리학 분야(10.2%)에서 상위 3개 유형 이내에 포함되었고 문헌정보학 분야(10.1%)에서도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지만, 유독 사회학 분야(0.99%)에서는 매우 드물었다. 사회학 분야 조사 대상 학술지의 투고 규정에서 학위논문의 투고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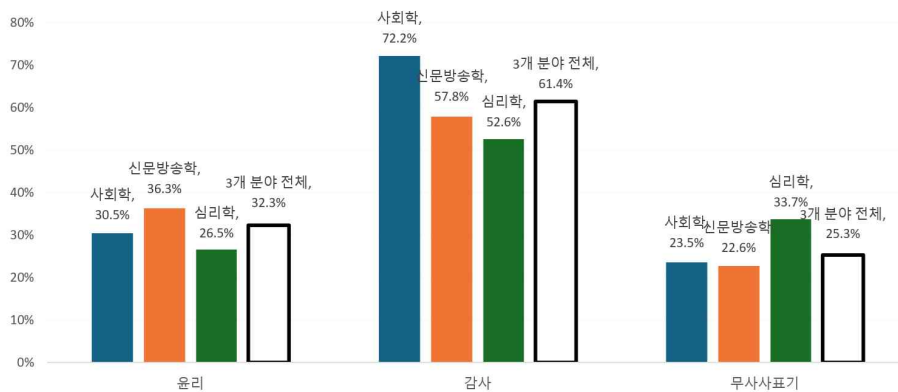
실제 3편의 투고 사례도 있었기에 학위논문-석사 유형의 논문 투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회학 분야에서는 다른 학문분야와 달리 석사학위논문에 대한 학문적 가치를 높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중에서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2종 학술지가 석사학위논문에서 비롯된 논문은 투고받지 않는 것도 사회학 분야와 비슷한 관행으로 볼 수 있다.

#### 4.3.2 중분류와 대분류 수준 사사표기 유형 비교

3개 사회과학 분야 학술지의 사사표기 비율을 중분류 수준과 대분류 수준으로 각각 산출해보면 <그림 1>, <그림 2>와 같다. 이때 같은 중분류 범주에 속한 소분류 범주의 사사표기 유형이 한 논문에 중복된 경우는 한 건으로 집계하였고, 대분류 범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위 중분류 범주의 중복은 한 건으로 집계하였다.



<그림 1> 논문 수 대비 중분류 수준 사사표기 유형별 비율(2017-2021)



<그림 2> 논문 수 대비 대분류 수준 사사표기 유형별 비율(2017-2021)

3개 학문분야 간 중분류 수준 사사표기 유형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해본 결과, 99%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카이제곱=118.56,  $p<.001$ ). 대분류 수준 사사표기 유형도 3개 학문분야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카이제곱=18.76,  $p<.001$ ).

〈그림 2〉의 대분류 감사 범주만 보았을 때, 사회과학 3개 분야 전체는 61.4% 수준이었고, 가장 높은 사회학 분야가 72.2%, 가장 낮은 심리학 분야가 52.6%였다. 이는 선행연구(장연미, 이재윤, 2024)의 문헌정보학 분야 비율 36.4%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해외 연구에서 다루어진 사사표기는 대부분 감사 범주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학문분야의 전체 사사표기 비율보다는 감사 유형에 해당하는 범주만의 사사표기 비율을 해외의 사사표기 비율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Paul-Hus et al.(2017)의 조사에서 2015년 발간된 WoS 사회과학 분야의 사사표기 비율은 33.7%였는데, 국내 사회학 분야의 72.2%, 신문방송학 분야의 57.8%는 해외의 경우보다 두 배 내외로 높은 수준이다. 다만, WoS 사회과학 분야는 사회학과 신문방송학 이외에도 여러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서 타당한 비교로 볼 수는 없다. 오래전 Cronin et al.(1993)의 분석에서는 사회학 분야의 사사표기 비율이 85.7%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국내 사회학 분야의 감사 유형 사사표기 비율 72.2%는 해외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WoS 심리학 분야는 사사표기 비율이 48.2%로 보고되었는데, 국내 심리학 분야의 52.6%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감사 유형 사사표기 비율 36.4%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WoS 전문

직 분야의 사사표기 비율 30.6%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국내 사회과학 분야와 문헌정보학 분야의 사사표기 비율은, 감사 유형의 경우만 감안할 경우 해외의 사사표기 비율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중분류 수준에서는 재정지원 유형의 사사표기 유형이 사회과학 3개 분야에서 47.3%로 가장 높았다. 학문분야별로 가장 높은 신문방송학(48.1%)이나 가장 낮은 사회학(46.0%) 간에도 미미한 차이만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장연미, 이재윤, 2024)의 문헌정보학 분야 비율 35.9%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중분류 수준에서 중복게재 회피를 위한 출판물 중복 면책 범주의 사사표기(학위논문, 연구사업보고서, 학술대회발표 등)는 사회과학 3개 분야 전체에서 29.5%였고, 가장 높은 신문방송학 분야가 33.3%, 가장 낮은 심리학 분야가 22.4%였지만 차이는 크지 않았다. 문헌정보학 분야도 선행연구(장연미, 이재윤, 2024)에서 29.6%로 나타나서 비슷한 수준이었다. 결국 해외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중복게재 회피를 위한 윤리 범주의 사사표기가, 문헌정보학뿐만 아니라 국내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국내 학계의 특수한 윤리적 사사표기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 5.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사회과학 3개 분야의 사사표기 내용을 분석하고 문헌정보학 분야의 사사표기 관행과 비교해보았다. 이를 통해 사사표기 관행은 국가 간, 학문 분야 간 차이가 매우 크므로,

해외의 조사 결과를 국내 학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연구의 전체를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가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사회과학 분야 학술지 논문의 사사표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2개 대분류, 5개 중분류, 25개 소분류로 구성된 사사표기 분류체계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전 문헌정보학 중심의 사사표기 분류 체계에서 없었던 유형 8개를 사회과학 분야에서 추가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기관내연구비지원을 비롯한 4개 사사표기 유형은 문헌정보학 분야에만 있었던 고유한 유형임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사회과학 분야나 인문학, 자연과학 등의 영역에서는 이런 사사표기 유형이 다시 발견될 수도 있다.

둘째, 국내 사회과학 분야별 사사표기 포함 비율과 유형별 사사표기 분포 특성을 파악해본 결과, 출판물 등의 중복 회피를 위한 윤리 유형의 사사표기가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내 학계가 연구 윤리 문제(특히 중복게재)에 대해 사사표기를 통해 면책 사항을 밝히는 관행을 광범위하게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해외에서 흔한 동료간 상호소통 유형의 사사표기가 사회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적지않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전 Cronin(1991)이 사사표기에 언급된 연구자의 등장 횟수와 인용 횟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을 정도로 해외에서는 저자 이외에 기여자(Contributor)의 역할을 인정한다. 반면에 한국 문헌정보학계의 사사표기에서 동료간 상호소통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예외적인 특징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저자 이외의 기여자가 드물기 때문일 수도 있고, 기여자가 있더라도 감사 표시를 잘 하지 않는 관행 때문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건강한 학문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겠다.

넷째,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비지원 유형 비율은 30% 전후 수준으로 분야 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비지원 유형 비율보다는 두 배 정도 높았다. 그대신 문헌정보학 분야는 연구사업보고서 유형이 사회과학 분야보다 10%p 이상 높은 14.4%를 차지해서 낮은 연구비지원 비율을 보완하였다. 장연미, 이재윤(2024)에서는 연구사업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위탁/용역연구 논문이 참고문헌의 양이나 최신성이 일반 연구 논문과 매우 달라 사례연구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 이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연구계획을 통한 연구비지원 획득이 자금보다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국내 사사표기 데이터 구축 및 국내 연구윤리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KCI 사사표기 데이터 구축 체계화 및 사사표기 기술방식 표준화가 필요하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데이터 재이용과 연구 투명성의 조건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도, 연구 정보의 공개와 관리 수준은 개별 연구자의 선택을 넘어 제도적 지원과 표준화된 관리 체계에 의해 좌우됨이 지적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는 사사표기 정보 역시 학술 정보 관리의 범주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활용될 필요가 있음을 뒷받침한다. 국내 KCI에서 2025년부터 사

사표기 데이터 입력이 권고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고 입력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사회과학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25개 소분류의 확장 분류 체계는, KCI 사사표기 DB 구축 시 유형 분류의 기준 및 데이터 입력 방안을 제안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사사표기 관련 지침이 기관마다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윤리 정책 단체들 사이에서 더 포괄적인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Teixeira da Silva et al., 2023)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연구비지원 유형의 사사표기는 일반적으로 지침에 따라서 정해진 양식으로 표기하는데 반해서, 연구 윤리 준수를 위한 사사표기를 어떻게 명확하게 서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없는 것은 문제이다. 향후 실제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유형별 사사표기 서술 지침을 제안하여 서술 방식의 표준화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복게재 회피를 위한 출판물 중복 면책 유형의 사사표기는 관련 연구물의 서지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연구데이터 재이용에 관한 박지원, 장우권(2021)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학문 공동체 내에서 형성된 사회적 조건과 동료 집단의

관행은 연구자의 인식과 실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사표기 역시 개별 연구자의 선택이나 형식적 관례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학문분야별로 형성되어 온 관행을 성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집단적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국내 학문분야마다 관성적으로 유지되어 온 사사표기 방식에 대해, 타 학문분야의 사례를 참고하고 비교함으로써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변화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사표기를 단순한 부수 정보가 아닌, 연구 과정과 기여 관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학술 정보의 한 구성 요소로 인식하는 전환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과학의 3개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가 국내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향후에는 인문학이나 자연과학 영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장하여 결과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종합적인 국내 사사표기 유형 통합 분류체제로 발전시키고, 유형별 사사표기 내용 서술 방식 분석을 통해 윤리 유형의 사사표기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 참 고 문 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박지원, 장우권 (2021). 사회과학분야 학술 연구자의 연구데이터 재이용 영향요인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8(4), 199-230. <http://doi.org/10.3743/KOSIM.2021.38.4.199>
- 서선경 (2024). 시간적 공저 네트워크의 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41(3), 381-409.

- <http://doi.org/10.3743/KOSIM.2024.41.3.381>
- 신은자 (2020). 의학도서관 사서의 SR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2), 179-195.  
<https://doi.org/10.4275/KSLIS.2020.54.2.179>
- 유삼영, 이세희 (2023). 안경광학 분야의 연구비 수혜 논문의 현황과 주제어 동향. *한국안광학회지*, 28(3), 117-131. <https://doi.org/10.14479/jkoos.2023.28.3.117>
- 윤정원 (2024). 글로벌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학술지 국제화 구성요소에 대한 고찰. *정보관리학회지*, 41(3), 359-380. <http://doi.org/10.3743/KOSIM.2024.41.3.359>
- 이나리, 박지홍 (2024). 공동연구 네트워크의 폐쇄와 구조적 공백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보관리학회지*, 41(3), 289-308. <http://doi.org/10.3743/KOSIM.2024.41.3.289>
- 이선희, 김지영 (2020). 고에너지 물리학 분야 국내 연구자들의 학술 커뮤니케이션 특성 분석: SCOAP3 오픈 액세스 학술지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7(2), 285-310.  
<http://doi.org/10.3743/KOSIM.2020.37.2.285>
- 이효빈, 백승민, 신정범, 김해도 (2020). 연구논문의 사사(謝辭) 표기 정책에 관한 연구. NRF ISSUE REPORT 2020\_11호. 한국연구재단.
- 장연미, 이재운 (2024).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의 사사표기 유형 구분과 계량서지적 특성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41(1), 313-338. <https://doi.org/10.3743/KOSIM.2024.41.1.313>
- Cronin, B. (1991). Let the credits roll: A preliminary examination of the role played by mentors and trusted assessors in disciplinary formation. *Journal of Documentation*, 47(3), 227-239. <https://doi.org/10.1108/eb026878>
- Cronin, B., McKenzie, G., & Rubio, L. (1993). The norms of acknowledgement in the fou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disciplines. *Journal of Documentation*, 49(1), 29-43. <https://doi.org/10.1108/eb026909>
- Cronin, B., McKenzie, G., & Stiffler, M. (1992). Patterns of acknowledgement. *Journal of Documentation*, 48(2), 107-122. <https://doi.org/10.1108/eb026893>
- Cronin, B., Shaw, D., & La Barre, K. (2003). A cast of thousands: Co-authorship and sub-authorship collaboration in the twentieth century as manifested in the scholarly journal literature of psychology and philosophy.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4(9), 855-871. <https://doi.org/10.1002/asi.10278>
- Cronin, B., Shaw, D., & La Barre, K. (2004). Visible, less visible, and invisible work: Patterns of collaboration in 20th century chemistry.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5(2), 160-168. <https://doi.org/10.1002/asi.10353>
-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2024). Defining the Role of Authors and Contributors. Available: <https://www.icmje.org/recommendations/browse/roles-and-resp>

onsibilities/defining-the-role-of-authors-and-contributors.html

- Jia, P., Xie, W., Zhang, G., & Wang, X. (2023). Do reviewers get their deserved acknowledgments from the authors of manuscripts? *Scientometrics*, 128(10), 5687-5703.  
<http://doi.org/10.1007/s11192-023-04790-7>
- Mackintosh, K. H. (1972). Acknowledgement patterns in sociolog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regon.
- McCain, K. W. (1991). Communication, competition, and secrecy: Th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research-related information in genetics. *Science, Technology, & Human Values*, 16(4), 491-516. <https://doi.org/10.1177/016224399101600404>
- Paul-Hus, A. & Desrochers, N. (2019). Acknowledgements are not just thank you notes: A qualitative analysis of acknowledgements content in scientific articles and reviews published in 2015. *PLOS ONE*, 14(12), e0226727.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26727>
- Paul-Hus, A., Díaz-Faes, A., Sainte-Marie, M., Desrochers, N., Costas, R., & Larivière, V. (2017). Beyond funding: Acknowledgement patterns in biomedical, natural and social sciences. *PLoS ONE*, 12(10), e0185578.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85578>
- Rattan, G. K. (2013). Acknowledgement patterns in *Annal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1999-2012. *Library Philosophy and Practice*, 989.
- Rattan, G. K. (2014). Acknowledgement patterns in *DESIDOC Journal of Library & Information Technology*. *DESIDOC Journal of Library & Information Technology*, 34(3), 265-270. <https://doi.org/10.14429/djlit.34.5952>
- Rigby, J. (2011). Systematic grant and funding body acknowledgement data for publications: New dimensions and new controversies for research policy and evaluation. *Research Evaluation*, 20(5), 365-375. <https://doi.org/10.3152/095820211X13164389670392>
- Smirnova, N. & Mayr, P. (2023). A comprehensive analysis of acknowledgement texts in *Web of Science*: A case study on four scientific domains. *Scientometrics*, 128(1), 709-734. <https://doi.org/10.1007/s11192-022-04554-9>
- Teixeira da Silva, J. A., Tsigaris, P., & Vuong, Q. H. (2023). Acknowledgments in scientific papers. *Publishing Research Quarterly*, 39, 280-299. <https://doi.org/10.1007/s12109-023-09955-z>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Bak, Ji Won & Chang, Woo Kwon (2021).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reuse of research

- data by academic researchers in the social scien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8(4), 199-230. <http://doi.org/10.3743/KOSIM.2021.38.4.199>
- Jang, Yeonmi & Lee, Jae Yun (2024). Acknowledgement types and bibliometric characteristic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artic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1), 313-338. <https://doi.org/10.3743/KOSIM.2024.41.1.313>
- Lee, Hyobin, Baek, Seung Min, Shin, Jung Bum, & Kim, Hae Do (2020). A study on acknowledgment policies for research papers. NRF ISSUE REPORT 2020\_11,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Lee, Nari & Park, Ji-Hong (2024). The impact of network closure and structural holes on research performance in collaboration network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3), 289-308. <http://doi.org/10.3743/KOSIM.2024.41.3.289>
- Lee, Seonhee & Kim, Ji-Young (2020). An analysis on scholarly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of domestic researchers in high energy physics focused on SCOAP3 open access journa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7(2), 285-310. <http://doi.org/10.3743/KOSIM.2020.37.2.285>
- Ministry of Science & ICT and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22). National R&D Research Ethics Guideline (2nd ed.). Ministry of Science & ICT and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Seo, Sun Kyung (2024). An analysis on the structure of temporal co-authorship network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3), 381-409. <http://doi.org/10.3743/KOSIM.2024.41.3.381>
- Shin, Eun-Ja (2020). Medical librarians' contribution to SR search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2), 179-195. <http://doi.org/10.4275/KSLIS.2020.54.2.179>
- Yoon, JungWon (2024). Global scholarly communication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scholarly journa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3), 359-380. <http://doi.org/10.3743/KOSIM.2024.41.3.359>
- Yu, SamYoung & Lee, Sehee (2023). Status and keyword trends of research funding articles in the field of optometry. *Journal of Korean Ophthalmic Optics Society*, 28(3), 117-131. <https://doi.org/10.14479/jkoos.2023.28.3.117>